

여우의 번식과 계절적인 영향

성 유 석*

1. 여우의 번식

여우농장에서 여우의 번식기가 1년중 가장 어려운 시기다. 이는 번식주기가 1년중 1번 밖에 없기 때문에 또한 발정기간이 1일 혹은 4일로서 평균 3일간이며 한번의 발정기가 지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여우의 발정주기는 일조시간과도 관계가 있다.

이는 가을에 들어서 햇볕을 쬐는 시간이 짧아지면 점차 발정기에 접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생리적인 현상에 의거, 눈이 먼 여우에게는 발정기와 발정이 오지 않는다.

발정기에 이르러서는 많은 기술을 요하며 한 마리 수여우에게는 두서너 마리의 암여우를 요하나 보통 수여우 한 마리에는 3 마리의 암여우에 짝을 맞추어 준다. 이때 발정기에 암여우를 수여우에 수여우를 암여우에게 옮겨 주면서 교배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교배에 관한 기술적인 것도 농장주 자신의 오랜 경험과 여우의 개별적인 습성을 잘 이용하는 것만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과제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발정기에 이르는 1월과 3월 사이의 수놈 여우의 고환의 크기와 홀몬의 양(정충의 수)은 최고의 절정에 이르며 이때야말로 번식의 최고 절정기라고 볼 수 있다. 이때 번식에 사용할 수 있는 수놈의 선택은 2개의 고환이

*야생동물병원

크고 잘 발달된 기형이 되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하며 기형이거나 보잘 것 없는 고환을 가진 수여우는 번식용으로는 사용치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고환의 크기와 잘 생긴 고환은 번식에 크나큰 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를 매년 선택하여 점검하여 이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2. 수여우에 있어 정충검사

수여우에 있어서 정충검사는 여우번식에 매우 중요하다. 정충검사는 어려운 작업이 아니지만 깨끗하고 좋은 샘플을 채취하지 못하면 번식용 훌륭한 종자를 선택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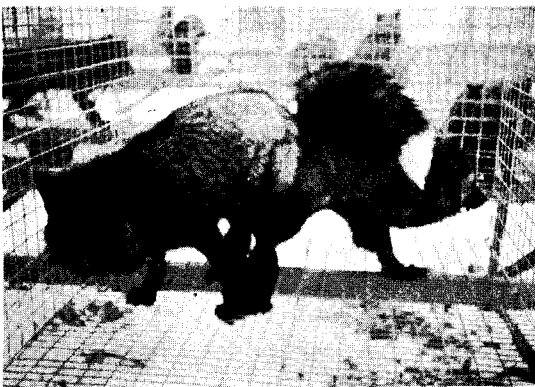
채취방법은 교미가 끝난 직후 암여우의 질에 피펫트에 약간의 증류수를 떨어뜨린 후 시험코저 하는 약간의 정액을 정액병에 받아 슬라이드를 사용, 100배의 배율로 검사하면 된다. 이러한 작업은 주울 때 실험하므로 실험코저 하는 정액을 추운 날씨가 혹은 찬 곳에 보관함으로써 정충이 얼어 죽었을 때 이를 잘못 판독함으로써 좋은 종자의 여우를 오판할 수도 있으니 샘플은 온화한 장소에 잘 보관하여 검사토록함이 매우 좋다. 수여우 종자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크고 힘이 좋은 놈으로서 고환이 크고 잘 생긴 여우가 좋다.

암·수 여우에 있어 발정은 1월에서 3월 사이에 오지만 1월초에 접어들어 발정중후가 나타나며 그 후 평균 10여일 사이 첫 발정이 온다.

이 경우 암놈의 외음부의 부은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혹 첫 교미에 암놈여우와 적은수의 여우들이 전혀 부은 상태가 아닌 증세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 이 경우 어린 암여우는 나이먹은 암여우와 함께 같이 합세하였다가 다시 분리시키는 방법도 발정에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는 점액의 분비를 외음부로부터 발견할 수 있으며 보통 24시간 내에 외음부를 훑으며 가끔 배뇨가 빈번하게 되며 수놈과 같이 꼬리를 위로 쳐들고 철망에 비비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행위를 시킴으로서 우리는 발정과 배란을 유발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또한 미약발정인 여우와 나이 어린 여우(즉 5월에 출생한 여우) 경우에 HCG 홀몬에 관한 치료요법도 발정과 배란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겠다. 이러한 결과후 52~53일이 되면 새끼여우를 얻을 수 있게 된다.



3. 여우 사육을 위한 계절적인 영향

1월 : 번식을 위한 계절이다. 모든 것을 번식에 맞추어 준비해야 한다.

- 1) 어린 여우와 번식을 위한 여우는 완전 분리시켜야 한다.
- 2) 번식장재로 건초나 혹은 짚을 넣어주어야 하며 먼지나 기생충 등을 완전히 제거시켜야 한다.

- 3) 1월말 발정에 의한 교배가 시작된다. 정확한 발정일자와 교배일자를 적어야 한다.
- 4) 암놈의 질과 음부를 관찰하여야 한다.
- 5) 매일 같은 시간내 먹이를 주어야 하며 추운 날씨에 대비하여 충분한 물을 주어야 한다.
- 6) 항상 주위환경을 깨끗이 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5~10%의 고기나 간을 항상 공급해 주어야 한다.

(1월의 사료)

잡사료	생선	곡물	고기	간	Vita E	철분
40%	20%	30%	10%	5%	소량	소량

- 2월 : 1) 여우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관찰하여야 한다.
- 2) 암놈의 경우 음부의 상태와 수놈과의 접근상태를 세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3) 교배는 가능하다면 2번 이상 시켜야 한다. 이때 기록은 명확히 해야 한다.
 - 4) 이 경우 동물의 거동상태, 눈동자, 체형을 보아 몸이 약한 경우 특별한 사료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 수놈의 경우 정액검사는 계속해야 하며 교배할 수 있는 종자로 고정시켜야 한다.
 - 5) 가능한 모든 여우들의 교배를 2월로 끝내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로부터 52~53일을 관찰해야 한다.

(2월의 사료)

잡사료	생선	고기	간	기타
30%	30%	40%	5%	가능하다면 Vitamin류

- 3월 : 수놈을 주시하면 서서히 발정증후가 떨어지는 것을 주시할 수 있다. 암여우의 경우 사료의 섭취량이 서서히 증가되며 활동하는 상태가 급격히 활발하여지기 시작함을 느낄 수 있다. 교배후(2주일 후) 이때 암놈의 경우 분만통을 부착시켜야 하며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분만통의

입구를 열어 주어야 한다. 이 때 사료는 달걀크기의 정도로 잘라서 공급하여 주는 것이 좋다.

4월 : 4월은 새끼를 낳는 계절이다. 새끼를 낳는 날은 암여우는 사료를 먹으러 밖으로 나오지 않으며 새끼를 낳는 다음 날 나오며 항상 새끼를 주시하고 있다. 이때 분만통에서 머물지 않는 암여우는 이미 분만후에 새끼를 잡아먹었던지 문제있는 여우이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만일 3일까지도 분만통에서 새끼 소리가 없다면 문제가 된 여우로 보면 된다. 분만 후 잘먹지 않던 여우가 서서히 사료먹는 양이 증가되면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암여우가 잘 드나들면서 사료를 먹고 활동한다면 걱정할 이유는 없다. 생후 3~4주가 지나면 1차 기생충 구충을 하여 주는 것이 좋다. 이때 간혹 어미와 새끼를 분리 시킴으로써 어미여우가 새끼를 물어죽이는 일이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한다.

5월 : 5월은 모든 번식이 끝난 달이기도 하다. 분만 4주가 지나면 새끼들은 분만통을 나와서 자신들이 물과 사료를 먹으면서 어미주위를 따라다니다게 된다. 7~8주가 되면 어미로부터 이유를 시켜도 된다. 이유시키기 전 새끼를 사육시킬수 있는 사육장을 충분히 준비해 두어야 한다. 하나의 사육장에 2-3마리의 새끼를 함께 사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때 어미로부터 새끼를 분리시킬 때 어미가 발견하기 어려운 곳으로 멀리 분리 사육시키는 것이 좋다. 가까운 곳에 새끼가 있다면 어미는 새끼가 그리워 사육장을 물고 뜯어 피해가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새끼를 분리시킨 후 분만통은 깨끗히 청소한 다음 다음 분만을 위해 잘 보관해야 한다.

6월 : 새끼를 어미로부터 분리시킨 후 모든 것이 끝나면 새끼나 어미의 성장을 위해 고

단위 단백질사료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 여기에 vita-E와 철분 사료의 공급은 줄 필요가 없다.

생 선	고기	닭고기	잡사료	간
35-40%	30%	5-10%	25-30%	약간

어린 여우에게는 예방접종을 실시할 준비를 하여야 하며 새끼를 위한 사육장 등 이에 필요한 시설을 준비하여야 한다.

7월 : 생후 10주가 되었을 때 예방접종은 끝마쳐야 하며 모든 여우에 있어 구충과 함께 위생적인 사육시설과 함께 Eanmite와 먼지가 나지 않도록 사육장을 잘 돌봐 주어야 한다. 이때 어린 새끼를 위해 사료나 먹이통을 깨끗이 해야 한다. 어린 새끼는 더운 날을 피해 선선한 저녁이나 아침에 사료를 먹는 예가 많으므로 이를 유의해야 한다.

8월 : 8월에 접어들면 사료의 급여와 급식도 잘 되어감을 느낄 수 있다. 이때 주의는 너무 살이 찌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어린새끼의 발육은 매우 빠르며 너무 살찐 어린 여우는 12월에 들어서면 모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각별히 주의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급여된 사료의 모든 비율의 15~20%를 감소시켜야 한다.

9월 : 9월에 접어들면서 새끼여우의 왼쪽 귀에는 번호와 오른쪽 귀에는 여우농장의 고유번호를 찍어야 한다. 새끼는 살이 너무 찌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한다. 여우들은 또한 겨울털을 얻기 위해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사육장에서 싸우지 못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분만통을 깨끗히 소독하여 분만통내 분을 제거하여 잘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료의 공급은 잘 분쇄하여야 하며 사료는 잘 혼합하여 영양을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

10월 : 10월에 들어서면 한개의 사육장에 한 마리 혹은 두마리의 여우를 사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육장의 크기도 여우의 크기와 마리수에 맞추어 설계를 해야 한다. 한 사육장에 한 마리 이상의 여우를 사육할 경우 여우 사육장이 좁다면 피해를 입을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잡사료	간	생선	고기	닭고기
35-40%	10-15%	30%	35%	10%

11월 : 금년에 출생한 여우와 나이먹은 여우와 분리시켜야 한다. 11월 중순에 들어서면 분리된 여우들을 등급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이를 상세하게 기록 카드에 작성하여야 한다.

- 1) 체형이 크고 훌륭한 암수를 구별하여야 한다.
- 2) 수놈의 경우 크고 훌륭한 고환을 가진 놈을 선정할 것.
- 3) 금년 출생한 여우는 크고 훌륭한 것을 선정해야 한다.
- 4) 털색이 윤기가 나고 질이 좋은 여우를 선정해야 한다.

또한 11월은 번식에 대비하여 암·수 번식을 필요로 하는 여우를 팔거나 살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해야 한다. 11월말에 들어서면 첫 출산하는 여우를 위해 위생적인 번식사육장과 겨울철 충분한 일광을 즐길 수 있는 장소와 새끼를 위한 짚, 널판지 등 다른 모든 필요한 기구기재를 준비

비해야 한다.

12월 : 12월은 여우모피를 얻기 위한 계절이며, 여우로서의 가장 성숙된 계절임을 알아야 한다. 12월이 되면 은여우의 경우 모피변화가 시작되는 달이기 때문이다.

- 1) 여우의 모피를 얻기 위해 박피된 여우 모피내의 지방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 2) 널판지에 모피를 고무 퍼서 잘 말려야 한다.
- 3) 너무 뽀뽀하게 퍼는 것은 좋지 않다.
- 4) 여우를 놀라지 않게 잠들게 죽여야 한다(도태시켜야 한다).
- 5) 포장을 하기 위한 모피는 깨끗하게 건조하여야 한다.

발정기에 접어 교배가 끝나면 우리는 월별 진행과정에 의거 준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착실히 실천하므로 기대할 수 있는 마리수의 새끼여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에서 고급 모피용 여우나 밍크를 사육하는 농장에서는 오랜동안 자신들이 터득한 실질적인 경험과 이에 실질적인 이론에 앞선 수의 학분야에서의 서로의 아낌없는 눈부신 노력의 공동연구는 계속 좋은 품종과 색상사료의 품질 개선 등 많은 문제점이 계속 개선되어 오고 있다.

여우사육이 우리나라에서 5년째 접어들면서 기초사육단계에 있는 모피동물 사육분야에서 우리 수의 임상분야에서 가볍게 생각지 않으며 선진 외국에서 100년이상 앞서가는 수의야생모피 동물분야에 다 함께 우리 수의분야도 노력 연구하여야겠다고 보겠다.